

‘몸조심’ 이재명, 대세론 췌기 시도...박·강 “反明 결집”

李, 일정 비우고 토론회 준비 매진 리스크 최소화 전략 나서
박, 사당화 저지 李 때리기...강, 봉하·평산마을 방문 친노·친문 구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초반부터 ‘어대명’ (여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로 흐르면서 후보들의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굳히기에 돌입했고, 반이재명계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압도적 선두 자리를 꿰찬 이 후보는 실점을 최소화하며 일찌감치 대세론에 췌기를 박는 ‘안전모드’를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 개정 논란’이나 ‘사법 리스크’ 등을 고리로 한 상대 후보의 견제술에 정면 대응하지 않는, 이른바 ‘로우키’ 행보로 승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8일 모든 공식 일정을 비우고 다음 날 있을 방송토론회 준비에만 매진키로 한 것도 ‘리스크 최소화’ 전략의 하나로 해석된다.

친이재명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70%가 넘는 권리당원 득표율을 쌓았다. 굳이 추가 득점을 노릴 필요가 있느냐”며 “통합 메시지를 좀 더 세계 가져가면서 준비된 당 대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재명 캠프’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박용진·강홍석 두 분의 젊고 능력 있는 새로운 리더들과 함께 유능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반면 ‘어대명’ (여차피 대표는 이재명)의 벽을 실

감한 박용진·강홍석 후보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마땅한 반전 카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단 두 주자 모두 당내 ‘반(反)이재명’ 정서를 최대한 자극해 추격전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캐스팅보트’인 총청과 관리당원이 대거 포진한 호남 경선에서 대이변을 연출하면 극적 역전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선거인단 비중이 30%인 대의원 표심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 공개되는 것도 이들이 ‘완주’ 의지를 불태우는 요인이다.

다만 2~3위 간 표 차도 적지 않았던 만큼 두 주자 간 전략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2위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강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했다.

그는 회견에서 ▲최고위 권한 강화 ▲인사위원회 출범 ▲공관위 1년 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3가지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재명 사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인 만큼 일찌감치 당 대표의 힘을 빼놓으려는 여론전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땡큐다. ‘이당땡’이라고 한다”며 “민주당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아울러 “대세론 착시 현상 때문에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경선 예정지의 당원들에 대한 투표 독려전을 펴기도 했다.

강 후보는 이날 아침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오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부산·울산·경남 지역경선을 앞두고 친노·친문 성향의 전통적 지지층을 향한 표심 구애로 일한다.

강 후보는 지난 주말 1·2차 경선에서 5%에 못 미치는 누적 득표율(4.98%)을 기록하며 열세에 처했다. 이 후보의 득표는 물론 최고위원 선거까지 친이재명계가 압도하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그간 광망 세웠던 친문계들은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어대명’의 파위가 생각보다 막강한 것으로 나타나자 최고위원단 만이라도 비이재명계를 최대한 진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문계 의원은 통화에서 “박·강 단일화는 이제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당 대표는 그렇다 쳐도 최고위원들까지 이재명계로 채워져서야 되겠느냐. 대의원들이 움직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與 비대위 전환 임박...성격·활동기간·인선 갈등

관리형이나 혁신형이나...기간도 5개월 vs 2개월 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출범 작업에 돌입했지만 8일 인적 구성을 두고 당내 갈등은 이어졌다.

비대위 활동 기간은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비대위 전환과 동시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비대위 활동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해두지 않은 채 비대위를 일단 출범시키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가 법원에 제기할 예정인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비대위 체제가 영향권에 놓여 있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비대위의 성격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과도기적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어느 정

도 강한 그림을 쥐고 당의 체질을 바꾸는 ‘혁신형 비대위’ 중 어떤 콘셉트가 적절한지 의견이 맞선다.

비대위가 조기 전대 준비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차기 리더십에 당권을 이양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혁신형 비대위’가 적절하다는 견해도 나오는 것이다.

5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말 엄중한 상황에서 비상적으로 꾸려지는 비대위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혁신형 비대위’를 선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가 언제까지 활동할 것인지를 놓고는 벌써 물밑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비대위 활동 종료는 곧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결정짓게 되

고 이는 차기 당권 주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민감한 지점이다.

당내에서는 오는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마치고 내년 초에 전대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비대위 활동 기간을 최소 ‘5개월 이상’으로 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는 모습이다.

반면,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 김기현 의원과 진윤(진윤석열)계 일부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인 9월 말~10월 초에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정상적인 지도 체제를 출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개월 단기형’ 비대위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비대위 규모는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명까지 가능하지만,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와 과거 비대위 구성 전례 등을 고려할 때 한 자릿수로 꾸려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시절을 포함해 여덟 차례 비대위 체제를 경험했으며 이때 비대위 규모는 5~14명으로 다양했으나, 9명일 때가 세 번으로 가장 많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절차 개시...경선 이뤄지나

11일 후보 등록 마감

정치개혁연대 평당원 출마 관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시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 등록을 공고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한 자로 지난 6월까지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했으면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은 11일까지이며,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가 2명 이상이 되면 경선을 위한 경선 기탁금을 별도로 시당에 내야 한다.

시당위원장은 권리당원 50%, 전국 대의원 50%

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현장 투표 등을 통해 선출된다.

그동안 의원 간 합의를 거쳐 시당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해왔는데, 최근 평당원들이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를 구성하고 출마 후보를 낼 것으로 밝혀 국회의원 대 평당원의 경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정당 운영방식을 바꾼다는 입장이며, 2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해야 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평당원도 시당위원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전직 보좌관에 피소 박미정 시의원 당직 자격정지 1개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전직 보좌관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박미정 시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위원회가 경징계인 당직 자격정지 1개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당원적인 시당 사무위원 자격을 한 달간 잃게 됐다.

광주시의회도 오는 2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서 박미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박 의원을 제외한 22명으로부터 징계 요구서를 받아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당 윤리심판위원회는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최영환 전 광주시의회에 대해서는 제명 결정을 내렸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h3>상무지구(상가매매)</h3>	<h3>당진(신축)원룸매매</h3>	<h3>경매교육【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h3>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향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p> <p>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p align="center">010-6670-9800 (062-382-5500)</p>		